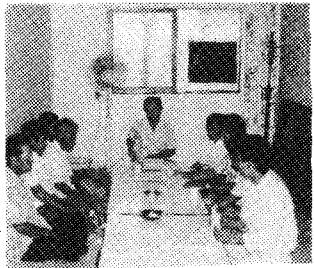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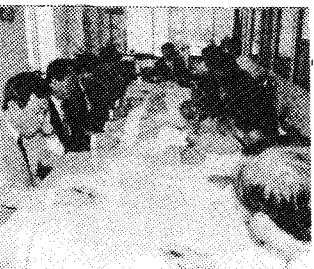
이 모 저 모



약초수확요령교육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성군 이용황 사무소장은 수확기에 앞서, 40여명의 관내 재배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초수확 요령과 수확 후 가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날 교육에서 이 소장은 약초 수확요령 외에도 저장·건조 방법등을 소개했으며 95년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대비, 출품 품목에 대해서도 재배회원들과 논의.



도지부장 회의

○...오는 21일 부터 개막 될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앞두고, 지난달 1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부장회의에서는 각 도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별 전시회 출품품목 및 구체적 행사일정에 대해 논의.

가공공장 준공식

○...강원도 인제군 이종렬 이사는, 지난해부터 착공에 들어간 생약조제시설이 완공됨에따라, 오는 10일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질 예정. 마침 이번 강원도 지부회의도 이날 준공식과 겸해, 인제에서 함께 열릴 예정이다라고.

지황건조실 완공

○...경북 김천 허영 사무소장인 최근 대지 5백28평, 건물 80평 규모의 지황 건조실은 완공, 대형 세척기 1대 건조기 2대를 갖추고 곧 가동에 들어갈 예정.

이 전

생약협회 경기도 안성군 사무소(사무소장·이용황)가 안성군 안성읍 서안리 61번지에서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71번지로 자리를 옮겼다. 전화번호는 675-1876으로 변경 없음.

우리 농수산물 대축제

광복 50주년 기념 지난달 20~29일 여의도 광장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모은 「우리 농수산물대축제」가 20일 부터 29일 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다.

우리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여 소비확대를 꾀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농수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로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한편, 생약협회 전라북도 지부도 이번 행사에 참여, 황기 당귀 오미자 등 약 50여종의 생약재를 출품 전시했다.

자연농업생활학교

지난달 16일 개교

충북 괴산군에 자연농업생활학교가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회장 조한규)는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



우수국산한약재 전시

지난달 25일 개최된 경동약령시 지정기념 행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국내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1백여종의 우수국산 한약재를 수입산과 비교·전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연농업생활학교를 마련하여 지난달 16일 개교식을 갖고 정산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의 농어업, 세계로 미래로

지난달 28일 전국농어업인대회 개최

「전국농어업인대회」가 지난 달 2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농어업인 대표들이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농어업인 선언문 채택에 이어 전통 민속예술공연을 비롯한 각종 자축행사와 농어업 발달사, 사진전, 농업인 우수명함 전시회등의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국의 농어업-세계로,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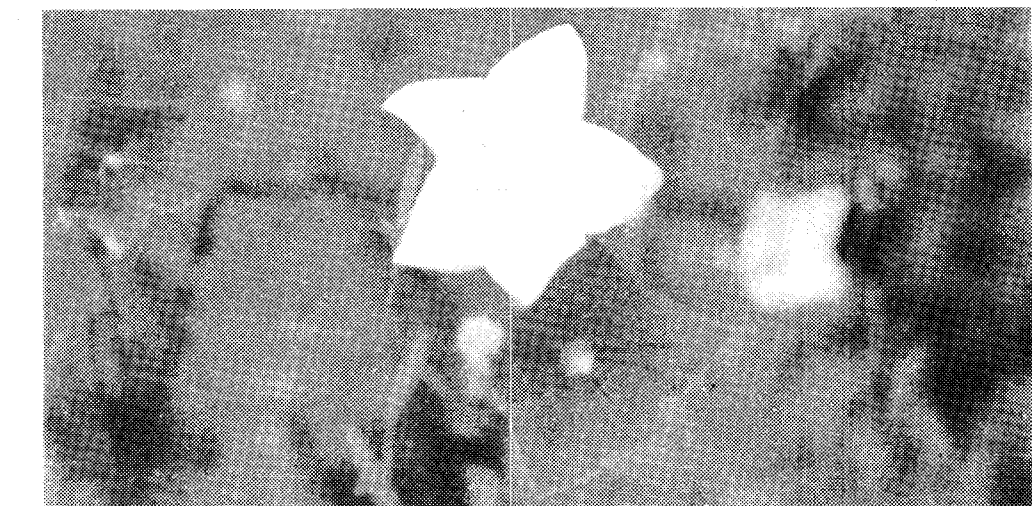
래로란 주제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는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농어촌의 발전상을 회고하고 우리농어업의 세계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아아두며 조이
글 두 L H L
우 리 약 재 호 노

도라지

겨울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호흡기 감염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증상에 지독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치료보다 또 다른 질환에 발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도라지는 가장 흔한 전통식품이며 전통약재인데 정작 이 약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도라지는 기침을 멎게하고 목에서 가래를 배출할때에 끈끈한 것이 나오고 때로 상한 냄새를 느끼게 되는 증상에 이 약을 다려서 먹으면 진해 거담효과가 뛰어나다.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들은 광고문안중에 가래·해소·천식에 용각산이라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어왔는데 이 처방에 중심약은 바로 도라지



라는 사실이다. 이 약에 들어있는 프라티코딘 프라티코디게닌 포리가 라신산 등은 모두 가래를 삭히는 작용이 뛰어나다. 도라

정효과가 다른 약재에 비하여 뛰어나다. 그래서 일반 기침으로 얼굴에 상기가 되면서 기침을 연달아하고 아침이면 얼굴이

◇도라지는 겨울감기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제다.

기침멎게하고 진해·거담효과

기관지 천식 폐결핵에도 효험

지 다린 물을 개에게 체중 1kg당 1g씩 계산해서 투여하였을때 호흡기로의 점막분비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시킨 다음 이약을 투여했을때 기관지 경련을 가라앉히는 진

부면서 목이 원소리를 하고 끈적끈적한 가래, 노란 가래를 배출하는 증상에 도라지를 다려 마시면 가래가 삭고 기침이 멎으면서 호흡이 원활해지고 인후에 부종이 소실된다. 그래서 도라지는 겨울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에

게 좋은 치료제가 된다. 일반 감기 이외에 기관지 천식, 폐결핵, 폐의 암종까지도 효험을 보이는 것이 바로 도라지이다. 1회에 용량은 4~8g을 다려서 마시는데 하루 3회 공복에 복용한다. 금기는 돼지고기, 굴과 같이 먹는 것을 피하고 화를 내상기되어있는 상태는 복용을 피한다.

생약인의 소리

강원도 평창에서 2천평 당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지난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당귀농사를 망쳤는데, 올해는 어이없이 떨어진 당귀시세에, 수확할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어

1년 내내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소득은 커녕,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다는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양파·고추 등 다른 농산물들은 수확기에 정부에서 일괄 구매도 하고, 가격조절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초농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무심경해 보이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쌀, 보리, 배추 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식이라면, 의약품의 원료인 생약재도 그에 못지 않은 필수 농산물입니다.

소중한 자원인 국산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라도 국내 생약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함승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7리 85>